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2호> 2018년 3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오이타현이 설치한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가 어느새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창업을 했거나 혹은 곧 창업할 유학생 등의 발표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업계획과 아이디어와 중국,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 모국과 오이타의 가교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으로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유학생들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오이타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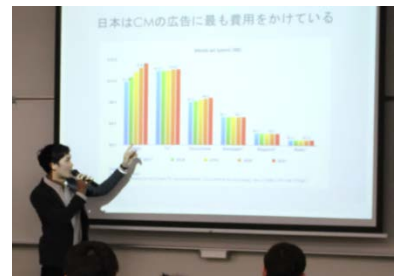
### 제 3회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2일, ‘오이타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SPARKLE)’와 공동 개최로 제3회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를 실시했습니다.

제 1부는 ‘유학생의 힘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테마로, 기업의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실제 유학생을 채용한 회사의 이야기는 매우 참고가 되었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 2부에서는 SPARKLE의 인큐베이션 시설에 들어와 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오이타현의 자원인 표고버섯을 활용해 ‘산 위의 표고버섯 스프’를 개발과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지역, 고객 밀착형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창업을 준비 중인 태국 유학생, 나이지리아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계획을 설명한 유학생의 발표를 들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발표자의 열정이 느껴졌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총 참가자 수는 43명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 깨닫고 얻는게 많았다. 앞으로도 계속 개최되었음 좋겠다”는 호평과 대부분의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현내 국제교류 담당자 회의 개최



지난 2월 23일, 현내 시정촌 국제교류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거주 외국인의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내년 현내에서 경기가 열리는 럭비 월드컵을 위한 대책 등 각 시정촌의 국제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현, 오이타 국제교류 플라자, 대학 콘소시엄 오이타의 사업 설명 후 각 시정촌의 금년도와 내년도 정책 등에 대해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다문화 공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취재로 유후인에서 쪽 염색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유후인은 여러 번 가봤지만 이런 체험 공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여행보다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새 완연한 봄기운이 더해지며 꽃피는 3월이 되었습니다. What`s up, OITA를 통해 여러분들께 오이타에 찾아온 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2호> 2018년 3월 발행

## 오이타 100% 즐기기! 유후인역 아트홀 & 천연 쪽 염색 체험



유후인 역사 내에 있는 유후인역 아트홀은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는 매달 바뀌며 이날 방문했을 때는 호주 출신의 웨인 그린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웨인 작가는 3년 전 일본인 아내를 따라 이 곳 유후인에 정착했으며, 작품 속에서는 유후인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있었습니다. 유후인은 여러 번 다녀왔지만 아트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매달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유후인에 오시면 아트홀의 작품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슈 유후인 민예촌은 옛날 가옥들 안에 민예품을 모아둔 전시관 및 옛날 우체국을 재현해둔 우편 자료관 등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각종 공방에서는 장인들이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도 견학할 수 있으며, 도자기와 쪽 염색은 방문객도 직접 체험이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직접 체험해본 쪽 염색은 방법은 간단하지만 천을 어떻게 묶고 염료에 몇 번 담그는지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이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완성품이 만들어질지 기대하며 만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유후인답게 염료를 행구는 물은 따뜻한 온천수였습니다. 민예촌은 관광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어 여행의 색다른 추억과 기념품을 만들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 쪽 염색 체험료  
손수건 1,300엔 (입장료 별도)

### <천연 쪽 염색 체험>



1. 반다나와 손수건 중 체험할 내용을 고른 후 전체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2. 만들고싶은 무늬를 생각하며 천을 고무줄로 묶거나 매듭을 짓습니다.



3. 천을 쪽물에 천천히 담근 후 30초동안 기다립니다



4. 그대로 꺼내 30초동안 공기 중에 산화시켜주며 3~5번 반복해줍니다



5. 깨끗한 물(온천수)에 천을 행구며 염료를 빼줍니다.



6. 다리미로 다려주면 나만의 손수건 완성!